

明醫 張介賓의 氣定品性論 淵源考

- 宋儒 張載의 氣質之性論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元鍾實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A Study on Zhang Jie Bin's Qi Determinism of the Human Nature

Won Jong Sil

Dept.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Nei Ching referred to as a canon of Chinese medicine is a comprehensive life philosophy that applied the life principle of the universe to the human body to combine the philosophical concept with the human nature as well as the functions of the body's organs. The book formed a complete system of a Qi Philosophy by using the medical terminology and theory based on the concept of Qi. It is remarkable that the Qi philosophy of Chang Tsai, who is a Neo-Confucianist and representative scholar of Qi philosophy in the era of Song Dynasty, has been influenced by the Qi philosophy in Nei Ching and developed into a Confucian school. Furthermore, Chang Tsai's theory, in effect, impacted upon the rise of Qi Determination of the Human Nature in Medicine of Zhang Jie Bin who is a profound thinker in the era of Ming dynasty. As mentioned above, both traditional philosophy and medical philosophy in china in regard to Qi Theory have interacted and developed each other. This paper is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f the Qi Determination of the Human Nature proposed by Chang Tsai and Zhang Jie Bin and to trace the origin of the Qi Determination of Human Nature.

KEY WORDS : Qi Zhi Zi Xing(氣質之性) , The Human Nature Theory of Qi(氣品性論), Qi Determinism of the Human Nature(氣定品性論)

I. 引 言

명대 醫家 張介賓의 의학사상에 관한 기존

의 연구 방향에 따르면, 주로 장개빈의 의학 사상과 易學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 논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만약 장개빈의 의학 氣論의 연원을 『周易』에서 찾고자 한다면, 실제 『易經』에는 「氣」字가 없으며, 단지 「

* 교신저자 : 원종실, 전북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易傳』에만 「氣」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 사실을 알게 된다.¹⁾ 이는 곧 장개빈의 의학적 氣論이 周易을 위시한 다른 철학이나 사상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실제로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 고찰하면 주로 氣와 陰陽五行의 개념을 결합하여 인체의 체형과 성격 및 질병을 통일적으로 판단했던 『黃帝內經』의 氣醫學 이론에서 가장 많은 사상적 영향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다. 실제 『내경』은 거의 모든 주요 의학이론과 용어에 氣 개념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素問』, 『靈樞』 등에서 「陰氣」, 「陽氣」, 「天氣」, 「地氣」, 「人氣」, 「正氣」, 「邪氣」, 「衛氣」, 「營氣」, 「大氣」, 「心氣」, 「血氣」, 「骨氣」, 「胃氣」 등 거의 모든 편에서 氣의 개념이 출현하며 『내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송대 유가로서 氣철학의 대표적 학자인 張載의 氣哲學 역시 『내경』 氣醫學의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아 유가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며, 이러한 장재의 氣論은 다시 명대 장개빈 의학의 氣定品性論²⁾ 형성에 매우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중국 철학사에서 氣를 우주의 본체로 인식한 氣一元論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 북송 理學家 張載를 들 수 있다. 張載는 이러한 氣를 인간의 品性和 직접 관련시켜 설명한 학설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유명한 天地之性和 氣質之性의 이론이다. 이렇듯 우주의 본체인 氣를 인간에게 적용시킨 장재의 氣質之性論은 바로 明代 저명한 의학사상가인 張介賓의 氣決定品性論 형성에 직접적 상관성을 맺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송대 理學家 張載의 氣論과 명대 醫家 張介賓의 氣論 사상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여 그 관련성을 깊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장개빈 기품성론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내경』의 氣品性論을 살펴보고, 다시 송대 理學家 張載와 명대 醫家 張介賓의 氣定品性論 사상을 상호 비교하여 그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장개빈의 氣定品性論의 연원을 상세하게 밝혀 보려고 한다.

II. 『黃帝內經』의 氣論

『내경』은 중국의학의 경전으로 단순한 질병 치료의 의학서가 아니요, 전체 우주의 생명근원을 이해하고 이를 인체에 적용시켜 인간의 신체내부의 장부기능과 외형과 그리고 인간의 성격 및 품성을 관통시켜 통일적으로 이해했던 생명사상으로, 우주본체론과 신체론과 품성론을 하나로 관통시킨 종합적인 생명철학이요,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멀티生命觀이라고 할 수 있다. 『黃帝內經·靈樞』의 陰陽清濁篇을 살펴보면, 이는 먼저 人氣를 清氣와 濁氣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陰陽과 결합시켜서 장부와 상관시켜 설명한 이론이다. 『靈樞·陰陽清濁』 제四十에 이르기를

黃帝曰, 愿聞人氣之清濁. 岐伯曰, 受穀者濁, 受氣者清. 清者注陰, 濁者注陽. 濁而清者, 上出于咽, 清而濁者, 則下行. 清濁相干, 命曰亂氣.

《황제가 말하기를, “바라옵건대, 인체의 청기와 탁기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기백이 말하기를, “곡물을 통해 받아들인 것은 탁기이고 호흡으로 받아들인 것은 청기입니다. 청기는 음에 주입되고 탁기는 양에 주입됩니다. 음식물 섭취로 받아들인 탁기에서 생성된 청기는 상승작용을 주관하여 위로 목구멍으로 나오고, 호흡으로 받아들인 청기에서 생성된 탁기는 하강 작용을 주관하므로 아래로 흐르게 됩

1) 『易說卦』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 『易乾卦·文言』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2) 氣定品性論은 저자가 명명한 것으로, 張介賓의 의학철학에서 제창한 「氣有不同, 萬物適值其氣, 隨所受而成其性」, 즉 품수 받은 氣가 곧 그 품성을 형성한다고 하는 그의 이론을 명칭한 것이다. 논문 제목에 나타난 氣定品性論은 바로 氣決定品性論의 약칭이다.

니다. 만약, 위로 상승하는 청기와 아래로 하강하는 탁기가 각자의 기능을 잃어 서로 뒤섞이게 되면 이를 난기라고 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氣와 陰陽 그리고 臟腑 삼자를 하나로 밀접하게 관통하여 인체의 질병을 이해하는 中醫 특유의 의학 이론을 살펴 볼 수가 있다.

『內經·靈樞』의 陰陽二十五人篇은 바로 음양 오행학설에 근거하여 인간의 체형과 품성을 분류한 이론인데 이는 『내경』에서 氣와 陰陽과 신체體形과 인간의 品性を 통일하여 이해한 醫論으로 후대 송대 유가인 張載가 제창한 氣質之性論과 명대 의가인 張介賓의 氣定品性論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요한 학설이라 할 수 있다. 『영추·음양이십오인』 제 육십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즉

黃帝曰 余聞陰陽之人何如? 伯高曰 天地之間, 六合之內, 不離于五, 人亦應之. 故五五二十五人之政, …… 愿聞二十五人之形, 血氣之所生, 別而以候, 從外知內何如?

《내가 듣자하니 인체는 음에 속한 것도 있고 양에 속한 것도 있다는데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백고가 말하기를 “우주천지간에 모든 만물은 오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인체 역시 오행과 밀접하게 상응합니다. 오행은 각기 다섯 종류의 유형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스물다섯 종류의 인간 유형이 있는데, …… 스물다섯 종류의 신체 유형은 품수 받은 혈기로 인해 특징이 만들어진다고 하며, 혈기가 서로 달라서 외부 형상의 특징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외형에서 내부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여 인간이 품수 받은 혈기가 곧 그 형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체 외부의 형

상으로부터 장기 내부의 기능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이른바 「二十五人之形, 血氣之所生」이란 이른바 신체내 血과 氣의 상태가 신체형상을 결정한다는 학설로서, 실제 전체 『내경』 사상은 인체내부의 血氣와 외부 形相 더 나아가 인간의 品性を 하나로 관통하여 이해하는 극히 유기체적이고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생명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영추·음양이십오인』에서 말하기를

木形之人, …… 其爲人, 蒼色, 小頭, 長面, 大肩, 背直, 身小, 手足好. 有才, 勞心, 少力, 多憂勞于事. 能春夏, 不能秋冬, 感而病生.

《목형인은 …… 그 신체가 피부가 푸른색이고, 머리가 작으며, 얼굴이 길고, 두 어깨가 넓고, 등이 곧으며, 몸이 작으며 손발이 재빠르다. 또한 뛰어난 재능이 있으며, 신경을 많이 쓰며, 체력이 강하지 못하고, 일을 함에 대개 근심이 많고 수고롭게 한다. 계절로는 봄과 여름에 강하며, 가을과 겨울을 잘 견디지 못하여 찬 기운을 맞으면 병이 생깁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즉 목기를 품수 받은 사람인 경우 그의 피부가 푸른색을 띠며, 작은 머리에 긴 얼굴 그리고 날씬한 어깨 등의 외형적 신체 조건은 물론이요, 노심초사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등의 성격과 품성을 설명하였고, 나아가 목형인인 적합한 계절과 질병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는 모두 氣와 陰陽五行을 결합하여 이것을 인체의 장부 뿐만 아니라 체형 및 성격에 적용하여 설명한 인체론과 품성론을 결합시킨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생명관인 것이다.

『내경』은 이와 같이 氣와 陰陽의 개념을 통해 인간의 人體論과 品性論을 결합하여 통일적인 생명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明代 의가인 張介賓의 氣定品性論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氣와 品性을 결합하여 인성론의 새로운 장을 개척했던 송대 유학의 氣質之性論 형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중국 儒學의 人性論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영추·五變』제46에서도 말하기를

夫柔弱者，必有剛強，剛強多怒，柔者易傷也。黃帝曰 何以候柔弱之與剛強？少俞答曰 此人薄皮膚……其心剛，剛則多怒，怒則氣上逆，胸中蓄積，血氣逆流，臍皮充肌，血脈不行，轉熱則消肌膚，故為消痺。此言其人暴剛而肌肉弱者也。

《무릇 오장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성격이 억세며, 성격이 억세면 화를 잘 내기 때문에 오장이 약한 사람은 쉽게 손상됩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오장이 약하고 성격이 억센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유가 대답하기를, “이런 사람은 피부가 얇고…… 마음이 억세고, 성격이 억세어 화를 많이 내고, 화를 내면 기가 역류하여 운라와 가슴에 기가 적체되어진다. 혈기가 정체되어 소통하지 않게 되므로 피부와 근육이 늘어나고 혈맥의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하여 뭉친 열이 된다. 뭉친 열이 형성되면 피부를 바짝 마르게 하고 이런 까닭에 소단병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곧 성격이 거칠고 억세며 근육이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오장의 기능 상태와 품성을 상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오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성품이 딱딱하여 화를 많이 낸다고 하였다. 즉 오장이 약하므로 쉽게 손상되고, 화를 잘 내어 기가 역류하게 되고, 기가 역류하므로 혈행이 가슴에서 막히게 되고, 기혈이 막히므로 오히려 열을 내게 하여 진액을 소모하고 肌膚를 건조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氣를 陰氣와 陽氣, 正氣와 邪氣, 清氣와 濁氣, 順氣와 逆氣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또한 이러한 기 개념을 통해 오장의 기능상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五臟의 기능상태와 인간의 품성을 직접 결합하여 설명했던 『내경』특유의 品性論은 후대 중국의학은 물론이요 바로 宋代 유가인 張載가 제창한 氣質之性論의 시조가 되어 그의 氣哲學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내경』은 또한 인체내 거의 모든 오장 육부와 신체기능 및 신체부위를 氣와 陰陽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³⁾, 이는 바로 중의학 특유의 陰陽五行 醫論의 시조가 되며, 또한 음양오행과 기를 결합시켜 인간의 품성을 설명했던 明醫 장개빈의 氣定品性論의 실제적인 사상연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III. 張介賓의 氣定品性論

張介賓은 그의 저서에서 만물은 품수 받은 氣가 서로 다르며, 또한 각자 품수받은 氣가 곧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한다는 氣決定品性說을 제창하였다. 먼저 張介賓은 『類經圖翼·陰陽體象論』에서 말하기를

人稟三才之中氣，爲萬物之最靈。

《사람은 천지인 중에 중기를 품수 받아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3) 『靈樞·陰陽繫日月』“黃帝曰，余聞天爲陽，地爲陰，日爲陽，月爲陰，其合之于人奈何？岐伯曰，腰以上爲天，腰以下爲地，故天爲陽，地爲陰”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듣자하니 하늘을 양이라 하고, 땅을 음이라 하고, 해를 양이라 하고 달을 음이라 한다고 하니, 이러한 음양의 이론을 인체에 적용한다면 어떻게겠는가? 기백이 말하기를 인체에 있어서 허리 이상을 하늘이라 하고, 허리 이하 부위를 땅이라 한다. 이런 까닭에 하늘은 양에 속하고, 땅은 음에 속하는 것이다)이라 하여, 天地陰陽의 개념을 사용하여 인체 부위를 陰과 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인간이 하늘과 땅 가운데 中氣를 품수 받아 만물 가운데 영장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이 우주의 三才 가운데 中氣를 받아 형성된 인간은 또한 각자 서로 다른 氣를 품수 받게 되는데, 이 氣가 서로 다른 品性を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즉 장개빈은 말하기를

氣有不同，萬物適值其氣，隨所受而成其性。『類經圖翼·陰陽體象論』

《기는 서로 다르다. 만물은 각자 자신의 기를 지니게 되며, 품수 받은 기에 따라 그 품성을 형성하게 된다.》

氣有純駁，稟賦所使，不期而然。『類經圖翼·陰陽體象論』

《기에는 순진한 것과 어지러이 섞인 것이 있는데, 품수 받은 바가 그러한 것이며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여, 氣에는 서로 다양한 종류의 氣가 있는데 만물이 각자 서로 다른 氣를 품수 받으며, 각자 품수 받은 氣에 따라서 저절로 그 품성이 결정된다는 학설이다. 이것이 곧 장개빈의 氣決定品性說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하늘로부터 품수 받은 氣가 곧 인간의 품성을 직접적으로 決定한다고 주장하는 장개빈의 이론은, 바로 氣와 인간의 品性を 밀접하게 상관시켜 설명한 북송 理學家 張載의 氣質之性 이론을 그대로 흡수하여 수립한 氣定品性論으로서, 바로 張載의 天地之性과 氣質之性의 학설을 기초로 하여 수립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張介賓은 기를 더 구체적으로 清正之氣와 偏濁之氣로 나누었고, 이 氣가 곧 聖人과 賢人 그리고 우매자와 불초한 사람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즉

得氣之清而正者爲聖爲賢，得氣之偏而濁者爲愚爲不肖。『類經圖翼·陰陽體象論』

《맑고 바른 기를 받은 자는 성인이나 현인이 되고, 치우치거나 탁한 기를 받은 자는 우매하거나 불초한 사람이 된다.》

라고 말하여 清正한 기를 품수받은 사람이 곧 성현이 되고, 偏濁한 기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둔하고 불초한 인간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개빈은 또 말하기를

氣得中和，則天爲至粹，地爲至精，人爲至德。類經圖翼·陰陽體象論

《中和의 기를 얻으면, 하늘에서는 지극히 깨끗한 것이 되고, 땅에서 지극한 정밀한 것이 되고, 인간으로는 극히 유덕한 사람이 된다.》

이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氣得偏駁，則天有至青，地有至幽，人有至戾。『類經圖翼·陰陽體象論』

《편벽하고 어지러운 기를 받게 되면, 하늘에서는 극심한 청색으로 나타나고, 땅에서는 지극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나고, 인간으로는 심히 비뚤어진 성품을 지니게 된다.》

라고 하였다. 즉 기를 中和之氣와 偏駁之氣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만일 치우치고 어지러운 기를 품수 받게 되면 하늘에서는 극도의 청색을 나타내고, 땅에서는 극히 어두운 것이 되며, 인간으로는 극히 못된 품성을 나타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장개빈은 氣를 크게 純正한 것과 偏駁한 것, 中和한 것과 偏偏한 것, 清正한 것과 偏濁한 것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氣의 속성에 따라 인간의 성품은 물론 그의 위인됨이 그대로 결정되어진다고 설

명한다.

다시 설명하면, 곧 偏濁한 氣를 받은 사람은 성품이 우매하고 불초하게 되며, 淸正한 氣를 받은 자는 성품이 성결하고 어질다고 설명한다. 또한 中和한 氣를 품수 받은 사람은 성품이 지극히 덕이 있으며, 偏僻한 氣를 받은 사람은 심히 사납고 비뚤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일한 氣를 품수 받았다 할지라도, 그 氣가 中和 상태인지 아니면 편벽한 상태의 氣인지에 따라서, 원래의 氣가 지니는 고유의 특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혹은 변질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즉 예를 들어 水氣를 품수 받은 사람의 품성은 본래 中和의 상태에서는 quiet을 따라 움직이는 動的인 성품이다. 그런데 만일 지나쳐 偏僻하게 되면 quiet에서 벗어나 흘러 가버리는 流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火氣를 품수 받은 사람의 경우, 中和 상태의 火氣일 때는 그 고유의 속성인 조급한 성품을 그대로 발휘하게 되나, 偏僻 상태의 火氣인 경우에는 거칠고 센 성품으로 변질하는 것이다.

이상에서는 주로 인간이 각자 품수 받은 氣가 그 위인됨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아래에서 장개빈은 또한 인간의 옳하고 옳한 품성이 바로 품수 받은 氣에서 결정되어 진다는 매우 구체적인 氣定品性論을 제시한다. 그는 말하기를

故左氏以民之善惡，本乎六氣，謂陽稟多者剛而烈，陰稟多者懦而柔，躁戾者陽中之惡，狡險者陰中之乖。『類經圖翼·陰陽體象論』

《좌씨는 백성의 선하고 악한 품성이 육기에서 근본한다고 여기며, 양기를 많이 품수 받은 사람은 강하고 거세며, 음기를 많이 품수 받은 사람은 나약하고 부드러우며, 조급하고 사나운 사람은 양기 가운데 열악한 기를 품수 받은 것이며, 교활하고 음험한 사람은

음기 가운데 비뚤어진 기를 품수 받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라고 하여, 인간의 선하고 악한 품성이 곧 氣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장개빈은 기를 또한 陽氣와 陰氣로 나누어 양기를 많이 품수 받은 자는 성품이 강하고 거세며, 음기를 많이 품수 받은 자는 나약하고 부드럽다고 말한다. 만일 양기 중에 나쁜 기를 받으면 조급하고 사나운 성품이 되며, 음기 중에 나쁜 기를 받으면 교활하고 음험한 성품이 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장개빈은 氣와 陰陽을 결합하여 인간의 품성을 분석하였는데, 아래에서는 더 나아가 氣에 五行을 결합한 氣品性論을 설명하게 된다. 즉

是以水性主動而偏則流，火性主急而偏則烈，木性多和而偏則柔，金性多剛而偏則戾，土性多靜而偏則愚。『類經圖翼·陰陽體象論』

《이런 까닭에 수성은 동적인데 만일 치우치면 옆으로 흘러 새버리고, 화성은 성품이 급한데 만일 치우치면 거세져 버리고, 목성은 대개 조화로운데 만일 치우치면 무르게 되고, 금성은 대개 견고하나 만일 치우치면 사납게 되고, 토성은 대개 조용하나 만일 치우치면 멍청한 성품이 된다.》

라고 말하여, 氣와 五行의 특성을 접목하여 인간의 품성을 이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개빈의 氣品性論은 특히 氣에 陰陽과 五行을 결합하여 인간의 성품을 설명하는데, 이는 宋代 理學思想家인 張載의 氣質之性論에서 더욱 발전된 기품성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陰陽五行 개념을 중시했던 중국 의학의 고유한 人性論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張介賓의 氣定品性論을 살펴보았는데, 아래에서는 張介賓의 氣論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宋代 理學家 張載의

氣 개념 및 氣質之性論을 살펴보기로 하자.

IV. 張載의 氣質之性論

1) 張載의 氣사상과 『黃帝內經』과의 관계

陳俊民은 『張載哲學與關學學派』一書에서 북송 理學家인 張載의 氣論 형성의 철학적 배경으로 중국 의학의 최고 경전인 『黃帝內經』을 들고 있는데, 바로 송대 理學家인 張載의 氣 철학이 『내경』에 나타난 氣思想의 영향을 깊이 받아 형성되었다는 학설이다. 즉 張載는 老莊의 道家 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醫書인 『내경』의 철학개념과 범주를 흡수하였으며, ‘太虛’의 개념을 사용하여 ‘氣’를 규정하는 사유체계는 바로 『내경』에 나타난 氣 사상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⁴⁾

이는 실로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극히 새로운 학설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철학 발전사에 있어 대표적인 氣哲學의 주자라고 할 수 있는 北宋 張載의 氣哲學 형성에 오히려 중국의학서인 『내경』에 나타난 氣論의 사상적 영향이 컸음을 밝혀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 철학에 나타난 氣 개념이 漢代 의학 경전인 『내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氣와 醫學을 접목시킨 『내경』의 독특한 氣論이 오히려 후대 중국 철학의 대표적인 氣철학자 宋代 張載의 氣論 형성에 중요한 사상적 근간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張載는 유가답게 바로 氣 개념을 사용해 인간의 品性과 연관시켜 天地之性과 氣質之性의 人性論을 탄생시켰으며, 여기에 멈추지 않고 張載의 氣論은 다시 明代 의학사상가인 장계빈의 氣論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쳐 질병치유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사실은 이제 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극히 가치 있고 중요한 학술적 발견이 된다. 이는 실로 中醫哲學 발달사에서 새로운 획을 긋는 매우 가치 있는 참신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철학과 의학철학의 상호 관계를 다시한번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張載 철학체계에서 氣論의 骨幹이 되는 이론은 곧 「太虛即氣」, 「虛空即氣」라고 말할 수 있는데, 陳俊民은 말하기를 실제 중국철학사에서 太虛, 虛, 氣 개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서적은 중국 의학의 최고 경전인 『내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素問』, 『靈樞』 등에서 ‘太虛埃昏’, ‘太虛蒼埃’, ‘氣虛’, ‘氣實’ 등이 나타날 뿐 아니라, ‘陰陽之氣’, ‘天地之氣’, ‘五臟之氣’, ‘四時之氣’, ‘大氣’, ‘心氣’, ‘血氣’, ‘骨氣’, ‘胃氣’ 등, 『내경』의 거의 모든 의학이론과 용어에 氣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⁵⁾

南宋邵伯溫 『邵氏聞見錄』卷15에 기록하기를 “熙寧十年(1077), 子厚(即張載)復召還館, 康節已病, 子厚知醫, 亦喜談命, 診康節脈曰, 先生之疾無慮.”라고 하였다. 또한, 張載 『正蒙·動物篇』에서도 “醫謂饑夢取, 飽夢與, 凡寤夢所感, 專語氣于五(藏?)之變, 容有取焉爾.”라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張載는 天文物理 動植物 등의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중국의 학에도 상당히 정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儒家의 『六經』을 깊이 연구하였고, 또한 道家와 佛家 철학을 두루 섭렵하였으며 中國醫學에도 상당한 조예가 깊었던 張載가 『내경』의 氣 사상을 흡수 섭렵하여 그 특유의 氣哲學을 수립한 것은 어쩌면 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런 이치라고 할 수 있다.

2) 張載의 氣質之性論

4) 陳俊民, 『張載哲學與關學學派』, p140, 1990年, 臺灣學生書局.

5) 參見陳俊民 『張載哲學與關學學派』, p140, 1990年, 臺灣學生書局

인간의 품성을 탐구하는 인성론은 중국철학의 극히 중요한 범주로 발전해왔으며, 북송 때에 이르러서는 氣와 인간의 성품을 결합하여 이해하는 天地之性和 氣質之性이라 하는 독특한 인성론이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氣質之性論의 창시자에 대해 朱熹는 언급하기를

氣質之說，始於何人？曰，此起於張程。某以爲極有功於聖門，有補於後學，讀之使人深有感於張程，前此未曾有人說到此……故張程之說立，則諸子之說泯矣。⁶⁾

《기질지설은 어떤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는가? 장재와 이정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들은 성인 문화에 큰 공로를 끼쳤으며, 후학에도 도움이 되었고, 그것을 읽는 이로 하여금 張載와 二程에게서 깊이 감동받게 하며, 그들 이전에 일찍이 이러한 학설을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까닭에 장재와 이정의 기질지설이 확립되면서 제자의 학설들이 사라졌다.》

라고 하였다. 주희는 「氣質之說」이 張載와 二程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장재와 동시대에 살았던 程明道 역시 「人生氣稟，理有善惡」이라고 하여 인간이 품수 받은 氣의 偏正에 따라 善惡의 다른 품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二程은 모두 기본적으로 理氣二元論에 근거하여 氣質之性論을 제창하였으며, 氣 자체를 우주의 본체로 간주하고 이러한 氣를 인성과 상관시켜 이해한 張載의 氣質之性論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⁷⁾ 즉 氣를 우주 최고의 범주로 삼아 본체

범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본체인 氣개념과 인간의 人性을 결합시켜 인간의 품성을 설명했던 이는 오직 張載 一人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곧 明醫 張介賓의 의학철학에서 나타났던 氣一元論의 경향과 氣定性論이 북송 二程의 理氣二元論을 바탕으로 한 氣質之說과는 다소 相異하며, 오히려 氣 자체를 우주의 본체로 인식한 氣一元論을 기초로 하여 氣質之性論을 제창하였던 張載의 氣論이 장개빈의 氣論과 더욱 직접적이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張載의 기질지성과 천지지성 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張載의 학설은 『西銘』과 『正蒙』에 잘 나타나 있는데 人性論은 주로 『正蒙』에 언급되어 있다. 『正蒙』중에 나타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바로 太虛와 氣 개념이며, 이는 또한 張載 전체 철학의 중심 개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張載 氣哲學 체계에 나타나는 氣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다시 이 氣와 관련된 品性論을 연구해 보기로 한다.

『正蒙·太和篇』에서 張載는 말하기를

太虛無形，氣之本體。其聚其散，變化之客形爾。至靜無感，性之淵源，有識有知，物交之客感爾。客感容形與無感無形，唯盡性者一之。

《태허는 형상이 없으며 기의 본체이다. 그것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변화의 외부적 모습일 따름이며, 지극히 고요하여 생명활동을 개시하지 않을 때는 품성의 근원이 되고, 사립과 얹이 있으면 만물이 서로 교통하여 생명활동이 있게 된다. 생명활동을 시작하여 형상을 갖춘 것과 생명활동 시작 이전의 형상이 없는 상태는 오직 천성을 끝까지 이루어 실행하는 자만이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있다.》

측면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程頤川 역시 程明道와 마찬가지로 理氣二元論에 바탕을 둔 氣質之說을 제창하였으며, 다만 理氣不一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6) 『朱子語類』卷4, 潘時舉錄, p. 40.

7) 程明道는 理와 氣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形而上爲道，形而下爲器」(『程氏遺書』，第一，『二程全書』)이라 말하며 道를 形而上으로 器를 形而下로 나누어 이해하였고, 동시에 또한 「須著如此說，器亦道，道亦器」(『程氏遺書』，第一)，「生之謂性，性即氣，氣即性，生之謂也」(『程氏遺書』，第一)를 주장하여 理氣不異의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른바 太虛는 氣가 아직 모이지 않은 본연의 상태를 말한다. 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곧 만물의 생성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氣의 聚散과 만물의 생성 변화는 곧 일시적 현상에 속하므로 「客感客形」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無感無形」의 太虛가 그 생명 창조의 기능과 동력을 발휘할 때 이를 氣라고 일컫는데, 이러한 太虛와 氣는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주 생명 창조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氣가 운행하고 활동하여 만물이 생겨나고, 그 만물 안에 운행하던 氣가 정지함으로 만물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張載 철학에 있어 氣는 만물 창조의 직접적 根據이다. 그러나 이 氣 자체를 物質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생명창조, 즉 물질화를 가능케 하는 직접적인 動力 혹은 機能이라고 말할 수 있다.

張載는 또 말하기를

氣之聚散於太虛，猶冰凝釋於水，知太虛卽氣，則無無…… 諸子淺妄，有有無之分，非窮理之學也。『正蒙·太和篇』

《기가 태허에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마치 물에서 얼음으로 얼었다가 물로 녹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며, 태허가 곧 기임을 알아야 한다. ……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얕아 유와 무의 분별을 주장하나 이는 궁극적인 지식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한 氣의 聚散은 모두 동일한 氣의 생명활동에 속한다. 즉 氣가 生命活動을 진행하여 만물을 창생하고 운행하는 것을 氣之聚라고 하고, 생명활동을 진행하여 만물을 소멸시키는 것을 氣之散이라고 한다. 만물의 생성과 소멸은 氣의 입장에서 볼 때 모두 동일하게 생명활동의 한 부분에 속한다. 이는 마치 물이 얼음으로 얼기도 하고 물로 녹아내리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 양자는 모두 물의 동일한 생명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결코 有와 無의 분별적이고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러한 까닭에 張載는 太虛가 곧 氣라고 주장하는 「太虛卽氣」이론을 제창하여, 無感無形의 본체 太虛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氣이든지, 아니면 有形有象의 만물을 창생하는 生命動力, 生命機能의 역할을 하는 氣의 모습이든 양자는 실제 一物로서, 동일한 생명활동의 主宰者요 실체라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太虛와 氣 개념에 이어 性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氣의 실체를 말한 것으로 삼자는 역시 一物이다. 즉 『正蒙·太和篇』에서 張載는 말하기를

由太虛，有天之名。由氣化，有道之名。合虛與氣，有性之名。

《태허의 존재 상태로 말미암아 天이라 명칭하였고, 기화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道라 명명하였으며, 이러한 태허와 기의 생명활동이 결합된 것을 性이라 부른다.》

이라 말하였는데, 여기에서 「性」은 바로 우주의 본체인 氣가 인간에게 적용되어진 것이며, 인간이 하늘로부터 품수 받은바 우주 본체인 氣의 품성을 말한다. 따라서 氣에 의해 창조된 모든 인간이 동일한 氣의 品性を 지니게 되는데, 이것을 張載는 天地之性이라고 일컫는다.

이와 같이 張載의 人性論은 우주의 본체가 되며 생명창조의 주체가 되는 氣로 말미암는 品性인 純善의 天地之性과 생명 창조 이후에 비로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有善有惡의 氣質之性으로 나누어진다. 이른바 天地之性에 관해 장재는 일찍이 말하기를 “性者，萬物之一源，非有我之得私也。”(『正蒙·誠明篇』), “天道卽性也。”(『張橫渠易說·說卦·乾稱篇』)라 하였다. 즉 天地之

性란 모든 만물이 동일하게 품수 받는 근원적 속성으로 결코 나만이 홀로 지닌 것이 아니며,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天道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張載의 氣質之性을 살펴보면, 『正蒙·誠明篇』에서 그는 말하기를

形而後有氣質之性，善反之則天地之性存焉，故氣質之性，君子弗性者焉。

《형상을 갖춘 이후에 기질지성이 나타나는 데, 기질지성을 잘 다스려 돌이키면 천지성성을 회복하여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질지성은 군자가 진정한 성품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며, 天地之성과 氣質之성의 차이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즉 氣의 생명활동에 의해 인간이 창조된 후에 서로 다른 인간 개체는 天地之성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다른 氣質之성을 지니게 된다. 이른바 氣質之性이라 반드시 만물 생성 이후의 인간이 지닌 固有의 품성으로 우주 본체인 氣의 속성 天地之성과는 달리 善도 있고 惡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張載는 「形而後有氣質之性」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張載는 또 일찍이 말하기를

人之剛柔緩急 有才與不才，氣之偏也。『正蒙·誠明篇』

《사람의 성품이 거세고 부드러운 것, 느리고 급한 것, 재주가 있고 없음은 모든 기의 치우침에서 결정된다.》

氣質猶人言性氣，氣有剛柔，緩速清濁之氣也。質，才也。氣質是一物，若草木亦可言氣質。『張載集』『經學理窟·學大原上』

《기질은 마치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것과 같아서, 거센 기와 부드러운 기가 있고, 느린

기와 빠른 기가 있으며, 맑은 기와 탁한 기가 있다. 質은 곧 才이다. 기질은 모든 물에 있고 풀이나 나무 역시 그 기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參和之氣와 偏僻之氣 등 서로 다른 기를 품수 받아 지니게 된다. 이 때문에 인간은 剛柔, 緩速, 清濁 등 서로 다른 氣를 품수 받게 되며, 이러한 氣로 말미암아 이에 相應하는 다양한 인간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氣質之性이다.

張載는 또 말하기를

人之氣質美惡與貴賤天壽之理，皆是所受定分。『張載集』『經學理窟』

《사람의 기질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귀한 것과 천한 것, 장수하는 것과 요절하는 기질이 있는데, 이 모두는 품수 받아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氣質 즉 성품이 아름답고 추한 것은 모두 氣를 받아 결정되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天道의 성품인 天地之성은 원래 純善한데 반해, 인간에게 적용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성품인 氣質之성은 善惡이 다 존재한다. 이런 까닭에 張載는 인간이 天地之성을 돌이키는 「善反之」의 수양을 통해 원래부터 내재하고 있는 天地之성을 회복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張載의 氣質變化論으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모든 기질은 바로 태어날 때 품수 받아 이미 결정되며, 품성은 바로 이 기질에 의해 형성된다는 氣定品性論이다. 氣에 관한 이 학설은 바로 명대 장개빈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어져 「氣有不同，萬物適值其氣，隨所受而成其性。」 「氣有純駁，稟

賦所使, 不期而然」의 氣 사상으로 나타난다. 상기 장재의 氣品性論과 그 사상적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만물은 각자 자기의 氣를 품수받게 되며, 각자 품수 받은 氣에 따라 그 품성이 형성되어지고, 또한 이러한 氣는 품수 받은 대로 결정된 것으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 없이 절로 정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張載가 언급한 「人之氣質美惡 … 貴賤 … 皆是所受定分」이론은 바로 張介賓의 이른바 氣定品性論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V. 結論

이상에서 보았듯이, 陰陽五行과 氣를 결합시켜 인간의 품성을 논했던 최초의 사상서는 바로 『황제내경』이며, 『내경』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氣 개념은 방대하고 체계적인 氣醫學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내경』의 氣醫學은 비단 후대 중의학 발달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중의학 이론의 주류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대 이래로 人性論을 중시했던 儒學에도 깊은 사상적 영향을 끼쳐 宋代 氣品性論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실제 二程과 張載 및 朱熹 등은 모든 氣와 인간의 품성을 결합시킨 氣質之性論 주장하였는데 이들

은 모두 『내경』에서 언급했던 氣品性論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송대 기철학의 대표자인 張載에 이르러서는 氣와 인간의 品性を 밀접하게 상관시켜 氣定品性 사상을 기초로 한 氣質之性論을 확립하기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장재는 氣 개념을 중심으로 儒家의 氣哲學의 완전한 체계를 정립하기에 이른다. 또한 張載의 氣質之性 이론은 다시 명대 의학사상가인 장개빈의 氣定品性論 형성에 직접적이면서 실제적인 사상영향을 끼치며 中醫哲學과 전통 중국철학간의 밀접한 학문적 교류를 이루게 한다.

여기서 장재와 장개빈의 氣品性論을 종합 비교해 보면, 張載는 그의 氣哲學에서 인간의 품성을 純善의 天地之性과 有善有惡의 氣質之性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양자는 모두 인간의 품성 가운데 내재하며 氣質의 變化를 통하여 氣質之性에서 天地之性으로 변화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서 장재는 품수받은 偏僻之氣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수양활동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그는 말하기를 「性於人無不善, 繫其善反不善而已。」(『正蒙·誠明篇』第六)라고 하여 氣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無不善」의 天地之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天地之性을 잘 회복하는나 회복하지 못하느냐는 그 개인의 수양 활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명대 醫家 張介賓의 氣決定品性論은 氣가 바로 인간의 품성을 결정한다는 이론에는 張載와 동일하나, 張載와는 달리 氣의 변화를 통한 品性 회복의 대안으로 수양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醫家의 본래 목적대로 질병 치료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氣에 의해 품성이 결정되고 그 品性에 따라 신체에 나타나는 疾病의 양상이 다르므로 品性を 보고 여기에 맞는 질병치료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張介賓이 醫家라는 취지와 목적에 따른 실제적인 학제간 교류

8) 소위 氣品性論 역시 저자가 명명하였으며, 총체적으로 氣와 인간의 品性を 밀접하게 상관시킨 人性論을 말한다. 또한 氣定品性論이란 氣品性論 중에서 더 구체적인 이론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이 하늘로부터 품수 받은 氣가 곧 품성을 결정한다고 하는 氣決定品性論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내경』은 “木氣를 품수 받은 사람은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기와 사람의 성격을 연관하여 나열하는 형태의 氣品性論으로, 결코 기의 영향력과 역할을 강조하여 기가 품성을 직접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氣定品性論의 사상은 잘 나타나 있지 않다. 참고로 언급할 내용은, 본 논문에서 말하는 『내경』은 일반적으로 唐代 王冰에 의해 보충 삽입되었다고 알려진 운기하설을 제외한 『내경』을 말한다.

요 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 보았듯이 장재와 장개빈 양자의 氣品性論은 모두 공통적으로 『내경』의 氣論 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張載가 제창한 氣定品性 사상을 내포하는 氣質之性論이 실제 明代의 저명한 의학사상가인 張介賓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의학에서 극히 중요한 핵심개념이 되는 氣가 인간의 품성을 직접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장개빈의 氣定品性論 형성에 직접적인 이론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 고대철학의 氣 개념을 받아 들여 이를 의학에 철저히 적용 및 발전시켜 天地人을 관통하는 특유의 氣醫學 체계를 확립했던 『내경』은, 후일 오히려 중국 전통철학의 氣品性論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특히 『내경』 이후의 氣學에 있어서는 중국 전통철학과 의학철학이 상호간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상을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版社, 1980년.

10. 張載 『張載全書』, 商務印書館.
11. 張載 『張載集』, 北京中華書局.
12. 嚴世芸 『中醫學術史』,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年.
13. 楊力 『周易與中醫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89年.
14. 鄒學喜 鄒成永 『中國醫易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8년.
15. 何少初 『古代名醫解周易』,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年.
16. 朱伯崑 〈張介賓의 醫學與易學哲學〉, 『中國文化與中國哲學』, 三聯書店出版社, 1987年.
17. 金重漢 『張介賓의 醫學思想과 理性批判에 對한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年.

參考文獻

1. 王冰 『素問王冰注』四部叢刊影印本.
2. 張志聰 『靈樞集注』康熙壬子刻本.
3. 郭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일중사, 1992년.
4. 陳璧琬 鄭卓人 『靈樞經白話解』, 人民衛生出版社, 1963년.
5. 洪元植校譯 『黃帝內經靈樞直譯』, 전통문화연구회, 1991년.
6.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여강출판사, 2003년.
7.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 금성인쇄사, 2001년.
8. 張介賓 『類經』上下冊, 人民衛生出版社, 1994년.
9. 張介賓 『類經圖翼』(類經附翼), 人民衛生出